

장애인 남자 좌식배구 국가대표 광주서 구슬땀

아시안게임·아시아챔피언십 겨냥 팀웍 다지고 3차례 교류전도 전갑수회장 숙소·훈련 시설 지원 “빛고을 기운 받아 메달 따낼 것”

한국 남자 좌식배구 국가대표팀이 2023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챔피언십을 겨냥해 광주에 훈련캠프를 차렸다.

강용석 감독, 조은상 코치, 주장 박연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달 20일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팀은 자체훈련을 통해 팀웍을 다지는 한편 광주 남네티, 전남팀과 3차례 교류전을 치르는 등 광주·전남 좌식배구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팀이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목 특성상 제약이 많은 대표팀이 이전 선수촌을 벗어나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전지훈련지로 광주를 선택한 데는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의 역할이 컸다.

전 회장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잡자리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 지원은 물론 좌식배구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장에 배구 전용 바닥재인 티라플렉스를 깔아주는 등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표팀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중국의 오피크로 확산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되자 전력 강화와 유지 위해 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다.

2002 부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전력 약화로 아시아 변방으로 밀려난 좌식배구는 강 감독 조련과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지원 아래 탄탄한 팀워크를 구축하며 역대 최강팀으로



한국 남자 좌식배구 국가대표팀이 광주 광산구 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거듭나고 있다.

강 감독은 “좌식배구 선수들의 전지훈련 선정에 가장 큰 애로점은 숙소 문제인데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는데 힘을 써줬다. 또 앉아서 하는 배구여서 훈련장 바닥의 마찰을 줄여주는 티라플렉스를 깔아주는 등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 감사하다”며 “특히 선수들이 만족도가 높아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음에도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빛고을의 좋은 기운을 받아 내년에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반드시 따낼 것”이라며 “선수들 모두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식배구는 하지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변형시킨 장애인 스포츠다. 앉아서 배구를 한다는 뜻에서 좌식배구라 부르게 됐다. 네트의 높이가 낮게 조정돼 일반 배구와 동일한 룰을 적용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이 한국 남자 좌식배구 국가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수완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선수들과 성공적인 훈련을 다짐하고 있다.

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보급됐으며 1994년 전국대회로는 처음으로 소아마비협회장배

가 개최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즌 3개대회 2연패’ 박민지 마지막 도전

대보 하우스디 오픈 8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민지 천하’ 두 번째 시즌을 만들고 있는 박민지(24·사진)가 40년 묵은 대기록 달성을 향한 마지막 기회에 도전한다.

박민지는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지난해 시작한 이 대회 초대 챔피언 박민지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박민지가 우승하면 한 시즌에 세 번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진기록을 세운다.

KLPGA투어에서 한 시즌 세 번 타이틀 방어는 고(故) 구옥희가 1982년에 달성한 뒤 어떤 선수도 해보지 못했다.

지난해 6승을 올린 박민지는 앞서 다섯 번 타이틀 방어전을 치러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셸트리온 컨즈 마스터스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대보 하우스디 오픈은 이번 시즌 치르는 마지막 타이틀 방어전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박민지는 지난달 26일 BC카드·환경 레이디스 스킵에서 시즌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이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시즌 네 번째 우승 도전이다.

대회를 치르는 서원밸리 골프클럽은 장타보다는 핀 주변에 볼을 떨구는 정확한 아이언샷을 구사해야만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박민지는 이곳에서 17개의 버디를 잡아내고 보기는 단 1개밖에 적어내지 않아 코스 공략에 상당한 자신감이 차 있다.

맥콜·모나파크 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신고한 임진희(24)는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창단 10년 광주 문화중 농구 전국대회 첫 우승

중·고농구연맹 권역별대회 선수 7명 팀워크로 우승 일궈 8월 주말리그 왕중왕전 진출

문화중학교 농구부가 ‘2022 한국중·고농구연맹 권역별 대회’에서 정상 차지했다.

5일 문화중학교에 따르면 최근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이 대회 결승전에서 전주남중을 역전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69-66으로 꺾고 1위에 올랐다.

문화중은 2011년 농구부 창단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1위에 올랐다.

문화중은 전통의 강호 전주남중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를 펼쳤다.

문화중은 1쿼터에 6-21으로 크게 뒤졌으나 2쿼터부터 점수 차를 좁히면서 3쿼터 중반 첫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는 박빙승부를 이어가다 69-66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권역별 리그(6승) 전승으로 우승한 문화중은 오는 8월에 열리는 2022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문화중의 여정은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멤버는 선수 11명 가운데 7명 뿐이었다. 3학년 3명(구유림, 유병무, 황시현 학생), 2학년 3명(김경륜, 박주현, 정유민 학생), 그리고 1학년 신입생 1명(추유담)으로 팀을 꾸렸다. 나



2022 한국중·고농구연맹 권역별 대회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문화중학교 농구부. <문화중학교 제공>

머지 벤치 자원은 갖 농구를 시작한 선수들이라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다.

3주째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뛰었고 교체할 수 있는 선수도 많지 않았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선수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장 구유림을 중심으로 단단한 팀워크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우승을 일궈냈다.

김서령 문화중 교장은 “얕은 선수층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훈련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박찬영 코치의 체계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성실한 훈련 참여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선정

국비 8억9000만원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서 국비 8억9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시체육회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지방체육진흥사업에서 지원받았던 금액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지난해(8억7000만 원)보다 8500여만 원 증액했다고 한다.

시체육회는 열악한 지방체육 활성화와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개팀(위탁운영팀 포함)과 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6개팀도 지원대상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실업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각종 경기(훈련)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국비 예산이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하계 강화훈련도 잘 소화해 제103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맘출린 만큼 값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절대 1강’ 신진서 31개월 연속 한국 바둑랭킹 1위

한국 바둑계의 최강자 신진서(22) 9단이 31개월 연속 왕좌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발표된 한국기원 프로기사 랭킹에서 1만389점을 기록, 박정현(9964점·29)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달 7일 끝난 제3회 쏘팔코사놀 최고기사결정전에서 신민준 9단을 3-0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이룩했다.

이에 따라 신진서는 쏘팔코사놀과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용성전, KBS 바둑왕전, SG배 명인전 등 5개 국내기전과 LG배·춘란배 2개 세계기전 등 7관왕을 지켰다.

올해 성적 49승 6패, 승률 89.09%를 기록 중인 신진서는 사상 처음 90%대 승률에 도전 중이다.

또한 신진서는 상반기에만 7억7600만원의 상금 수입을 올려 3년 연속 10억원 돌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신진서와 박정현의 뒤를 이어 변상일(9900점) 9단이 3위를 지켰고 강동운(9747점) 9단은 두 계단 오른 4위가 됐다. 신민준 9단과 이동훈 9단은 각각 한 계단씩 하락한 5·6위에 랭크됐다. 여자기사 중에서는 최정 9단이 4계단 하락한 25위, 오유진 9단은 7계단 오른 81위가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2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3관 범피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5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9관 탐간: 매버릭
- 7관 씨네캐플 탐간: 매버릭, 컴온 컴온, 빅사크4: 바다공룡 대모험
- 8관 씨네캐플 헤어질 결심, 범피도시 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공연
GAC ART WEEK
일시 : 2022.07.06.(수)~15.(금)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